

번역가들이 추천한 '다시 펼쳐보고 싶은' 올해의 책

전 세계 양서를 발굴해 국내에 소개하는 번역가. 올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한 유명인의 대리번역 사건은 원저자의 인기로 가려져 있던 번역가들의 노고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번역관행을 들먹이며 많은 번역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묵묵하게 원서의 참맛을 알리던 일부 번역가들도 "베스트셀러의 여지가 있는 많은 작품들이 번역자의 지명도가 낮아서 그냥 살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말로 잠깐의 한숨을 짓는다. 원하는 책을 골라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으며 그만큼 고충이 따른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갖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책에 담겨있는 영양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전달키 위해 수많은 번역

가들의 한숨과 밤이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이번 송년호에서는 특별히 전문 번역가가 가려 뽑은 올해의 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건은 단순히 '번역의 질'에만 두지 않고(잘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가린다는 것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대개의 번역가들은 자신이 참여한 책 이외에 원서를 접할 기회와 시간이 부족) 번역가 이전에 독자로서 올해 접한 책들 중 '다시 펼쳐보고 싶은 책'에 무게를 실어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개할 도서들은 10인의 번역가들이 뽑은 30여권의 도서 중 상위 3위안에 드는 책들 가운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책과 그 이유를 바로 적은 책들이다. **주요**

정리_송보경 기자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하이다 토플러 공저 | 김중웅 옮김 | 청림 | 656쪽 | 값 19,800원

책소개 :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저작으로 미래 사회 예견과 그 대책을 제시한 책. 경제, 사회, 개인 삶의 영역까지 조망 해 출간 이래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에 머무르고 있다.

선정이유 : "일반인들에게 다소 딱딱하게 느껴 질 수 있는 주제들을 최대한 쉽게 전개해 나가려는 저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게 쉬운 문체와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한 번역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 용어와 신조어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도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욱)

"운이 없게도 원서와 번역서를 전부 보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번역이 충실했다는 점이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벌써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제도 때문에 말썽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공공교육의 시대착오적인 측면을 지적한 부분은 너무 놀라워 등골이 서늘했다." (김홍래)

《삼월은 붉은 구렁울》(三月は深き紅の淵を)

온다 리쿠 지음 | 권영주 옮김 | 북폴리오 | 400쪽 | 값 10,000원

책소개 : 단 한사람에게만 하룻밤 빌려줄 수 있다는 희귀도서 '삼월은 붉은 구렁울'. 등장인물들은 이 책에 얽힌 비밀과 각자의 사연을 풀어나며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일본 판타지노벨상을 계기고 등단한 소설가 온다 리쿠의 작품.

선정이유 : "글 자체도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넘치는 데다, 꼼꼼하고 애정 어린 번역이 돋보였다. 작품 자체도 좋았고 역자들의 정성이 느껴졌다." (김소연 외 2인)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지미 카터 지음 | 황진아 옮김 | 두란노 | 216쪽 | 값 10,000원

"원제는 '위험에 빠진 미국의 가치'다. 미국의 도덕적 위기를 카터답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전임 대통령으로서 비판하고 훈수한 책이기도 하다." (번역가 강주현)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When Nietzsche Wept)

어빈 알롬 지음 | 임옥희 옮김 | 리더스북 | 588쪽 | 값 13,000원

철학자 니체와 정신분석학자 브로이어 간의 화려하고 치밀한 지적 공방이 돋보이는 픽션스타일의 소설로 1882년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 등장인물인 브로이어는 니체로 상징되는 철학을 분석하고, 니체는 브로이어로 상징되는 정신분석학을 분석해 나간다.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은 스스로의 내적 진실에 접근하게 되며,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통은 점차 치유되어 간다. 해외에서는 10년이 훨씬 넘도록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생일》

크리스티나 로제티 외 지음 | 장영희 편역 | 비채 | 210쪽 | 값 9,500원

'장영희의 영미사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한 일간지에 연재된 글 중 사랑을 주제로 한 50여 편을 모아 엮은 책. 번역가 신재실 씨는 "엄격히 말해 이 책은 번역 플러스 수상(理想)이지만, 인간의 영혼이 담긴 (영미)사가 독서 대중에 어필할 수 있는 지평을 열고 있다. 다소의 결함이 용인되는 이유이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희망의 밭상(Harvest for Hope)》

제인 구달 외 지음 | 김은영 옮김 | 사이언스북스 | 445쪽 | 값 11,000원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이며 '침팬지들의 대모'로, 그리고 '유엔 평화의 메신저'로 널리 알려진 제인 구달 박사가 이번엔 우리의 밭상에 관심을 보이며 전세계 독자들에게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은 바로 우리의 밭상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밭상을 바르게 바꾸는 것이 바로 자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제인 구달 박사는 이 책에서 역설한다." (번역가 이구용)

《인생 수업》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케슬러 공저 | 류시화 옮김 | 이레 | 266쪽 | 값 9,800원

책소개 :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심리를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전달한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선정이유 : "죽음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유려한 문체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다." (최종욱)

무거운 인생론을 시(詩)적으로 번역했다. (신재실)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애니 프루 지음 | 조동섭 옮김 | 미디어2.0 | 366쪽 | 값 9,800원

책소개 : 풀리처상 수상작가 애니 프루의 단편모음집. 2006 아카데미 감동상과 각색상을 수상한 동명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을 비롯, 벌거숭이 소, 외딴 해안 등 11편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선정이유 :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겠지만 작품 자체도 좋았고 역자들의 정성이 느껴졌다. 번역하기 까다로운 책을 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세진, 허형은)

《단테의 빛의 살인》

줄리오 레오니 지음 | 이현경 옮김 | 황매 | 469쪽 | 값 9,800원

시인 단테가 '탐정'으로 등장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역사미스터리 소설. 열정적인 단테가 논쟁을 즐기며 교황의 음모와 중세기 어둠에 대적해 나가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번역가 김소연 씨는 1권 《단테의 모자이크 살인》과 함께 '어려운 번역'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냈다고 평했다.

《외과의사 The surgeon》

테스 게리첸 지음 | 박아람 옮김 | 노블하우스 | 464쪽 | 값 10,800원

로빈 쿡, 마이클 파머를 능가하는 메디컬 스릴러 작가 테스 게리첸 의학소설.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이코패스(Psycho-path:반사회적 범죄자) 범인이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를 다루고 있다. "작가의 박학함이 드러나는 소설. 해부학 용어에 대한 충실한 번역이 좋았다"는 평을 듣는 책.

《읽기와 지식의 감추어진 역사》

(Geschichte des Lesens von den Anfaengen bis Gutenberg)

한스 요아힘 그립 지음 | 노선정 옮김 | 이른 아침 | 407쪽 | 값 19,800원

인류가 지식과 지혜, 문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읽기에서 비롯됐음을 알려준다. 활자화 된 텍스트 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우주를 바로 아는 것부터 '읽기'로 간주한다. 읽기의 감추어진 역사를 통해 책에만 한정되어 있는 읽기의 이면사를 정리, 분석했다. 번역가 김홍래 씨는 "번역투의 문장이 보이지 않아 내용의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는 책"으로 꼽았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 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옮김 | 이재이북스 | 486쪽 | 값 18,000원

윤리철학사 필독서로 알려진 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의 방법론이 잘 드러나 있다. 역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한 전문가들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5년 동안 번역에 공을 들여 고대 그리스어 원문의 뜻을 충실히 담아냈다. 원전 번역 이외에 세 명의 공역자 논문이 첨가돼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번역가 이세진 씨는 "우리나라에서 고전 번역이 갈 길은 아직 멀다. 기존에 번역, 소개된 책이라 해도 중역과 오역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반가운 책"이라 설명했다.